

제30호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 서성화 과장



더 새롭게 더 힘차게 더 안전하게

시원스레 펼쳐진 넓은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파도가 밀려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동그란 조약돌.

부서진 바위가 파도에 의해 깎이고 깎여 예쁘고 동그란 조약돌이 되듯, 우리네 현장의 모나고 뾰족한 안전도 안전관리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으로 무해해라는 예쁜 안전으로 다 시 태어난다.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찾아바다가 맞닿는 곳, 경북 포항시로 발걸음을 옮겼다.

■ 안전은 쉽고 재미있는 것


회사에 발을 들여 놓으니 저만치 ‘더 새롭게 더 힘차게 더 안전하게’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고, 이어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성화 과장을 만날 수 있었다. 1984년 입사와 동시에 안전을 맡아 20여년간 동국제강(주)포항제강소의 안전을 함께한 그는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는 행동과 안전인이다.

안전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는 그는 TV 프로그램을 응용한 ‘골든벨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전에 500여개의 예상문제를 내어 공부하게 하여 퀴즈대회 대비와 함께 안전지식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안전이야말로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근로자의 마인드 변화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 Open Mind를 통한 안전관리

학사, 석사 모두 안전공학을 전공한 서성화 과장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은 물론 안전의 이론과 지식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안전지식과 자료를 모두 오픈하는 그는 ‘정보는 공유되어야만이 진정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고 얘기하며 자신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제공해 준다.

또한 DIOS(Dongkuk Internet Office System)를 구축하여 MSDS, 재해사례, 안전보건 등 각종 자료 및 양식을 담아 동국제강 누구든 열람 가능토록 하고, 실시간 일처리를 통해 시간 절약 및 효율 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평소 시간이 나면 원서로 된 안전관련 서적을 읽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그는 2005년도에는 서류없는 동국제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회사를 들어서며 마주친 ‘더 새롭게 더 힘차게 더 안전하게’ 라는 슬로건이야말로 그를 칭하는 함축된 표현이 아닐까? 

〈성호연 기자〉